

한국 실크로드 음악연구의 현황과 전망*

김현주**·채은유***

目 录

1. 실크로드 음악이란?
 - 1) 실크로드 음악의 의미
 - 2) 실크로드 음악의 가치
2. 한국 실크로드 음악연구의 현황
 - 1) 개념화 시기:1990년~2000년
 - 2) 확대 시기:2001년~2007년
 - 3) 다양화 시기:2008년~현재
3. 한국 실크로드 음악연구의 전망
4. 결론

1. 실크로드 음악이란?

1) 실크로드 음악의 의미

비단길이라 불리는 실크로드는 독일의 지리학자 페르디난트 폰 리히트호펜(F. von Richthofen, 1833~1905)이 처음 사용한 용어이며 이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연결하는 교통로를 의미한다. 정수일에 따르면, 실크로드는 3대 간선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유라시아 대륙 북방의 초원지대를 횡단하는 초원로이고, 두 번째는 중

* 본 논문은 2016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비지원에 의해 연구된 것이며, 2016년 중국문학회지리학회에서 발표한 문장에 내용을 보완한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통번역학과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과정

양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사막의 오아시스를 연결하는 오아시스로, 세 번째는 지중해, 홍해, 중국 남해 등을 포함하여 동서를 잇는 해로가 그것이다.¹⁾ 실크로드 상의 각 국가는 다양한 물품을 교환하며 물질문명의 교류를 이루었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문학, 예술, 종교 등이 전파되며 이 국가들 사이의 정신문명의 교류 역시 이루어졌다. 정신문명의 교류 중 예술, 그 중에서도 음악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향유할 수 있었던 문화예술로, 그들은 음악을 통해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동시에 실크로드를 통해 다른 나라 음악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자국의 음악을 타국으로 전파하기도 하며 교류를 이루어나갔다.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실크로드 음악’ 역시 실크로드 상에 위치한 각 국가의 음악이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음악이 전파 및 변화되는 과정과 각 국가의 음악적 교류의 의미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B.C 2세기부터 시작된 오아시스로를 통한 동서간의 왕래 이래, 어느 한 지역의 특산품과 관습·제도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고 교류되며 각 지역의 생활과 문화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전파와 교류와 변화를 일으킨 최초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졌는지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서 다룰 실크로드 음악의 경우도, 시각적인 문헌과 실물을 통한 연구 외에는 음악의 주요소인 소리에 대한 고증이 가능하지 못하다는 제한된 여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하고 정리한 연구 성과들은 주로 음악관련 문헌과 실물에 대한 그 동안의 해석과 비교분석의 결과임을 밝힌다.

2) 실크로드 음악의 가치

정수일은 그의 저서 『실크로드학』에서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를 옥·비단·인쇄술 등 물질문명의 교류, 문학·학문·예술·종교 등 정신문명의 교류, 그리고

1) 정수일, 『실크로드학』, 창작과 비평사, 2001, 46-53쪽 참고.

인간의 내왕을 뜻하는 인적 교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²⁾ 이 중 물질문명은 특정 물품, 인적 교류는 특정 사람이라는 실체가 존재하는 교류이나, 정신문명의 교류는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예술 분야 중 음악의 교류는 그 형상이 있는 악기의 전파로도 교류가 이루어지나, 형상이 없는 리듬이나 멜로디의 전파로 더 확장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음악적 교류의 관점에서 ‘실크로드 음악’이 가진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로, 실크로드 음악은 각종 놀이와 의식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고대 실크로드 상의 국가들은 축제나 종교의식을 치르며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도하곤 했다. 그 국가들 중 하나인 인도를 방문한 학자 전인평은 인도의 음악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힌두교의 신은 노래와 춤을 매우 좋아한다. 힌두교 신전에 가 보면, 그들의 종교 행사가 흥겨운 축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식은 딱딱하거나 근엄하지 않다. 긴 설교도 없다. 향을 바치면서 절을 하고 나서, 그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다. 자신들의 신이 노래와 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신에게 아뢰 간곡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신전에 와서 밤새도록 춤을 춘다. 이 춤은 신을 향한 춤이기 때문에 참으로 순수하다. 이 춤은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춤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신전에서 부르는 노래도 마찬가지로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듣고 즐기라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음악회에 가 보면 인도인의 음악관을 더욱 잘 살펴볼 수 있다. 연주회장에는 반드시 간략하지만 정갈한 제단을 만든다. 그리고 벽에는 자신이 모시는 신의 신상을 모신다. 음악 연주자는 자기가 모시는 신을 위해 연주한다. 연주자가 신을 위해 음악을 연주할 때, 이곳에 온 청중도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이다.³⁾

직접 인도에 다녀와 그들의 음악과 삶을 관찰한 전인평의 기록에 따르면, 실크로드 상의 국가들이 의식을 치를 때에 빠지지 않는 것은 음악으로, 사람

2) 정수일, 『실크로드학』, 창작과 비평사, 2001.

3) 전인평, 『실크로드, 길 위의 노래』, 소나무, 2003, 149쪽.

들은 옛 부터 악기를 사용하여 의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거나 음악을 흥얼거리며 춤을 추는 등 그들의 희로애락을 마음껏 풀어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떠한 문화예술보다 그 향유 대상의 수와 폭이 크다. 고대 실크로드 국가에는 정치·경제적으로 계급이 나뉘어 있었다. 문학작품이나 미술품을 감상하는 일은 주로 귀족을 비롯한 상류층의 문화였지만 음악은 이와 달랐다. 상류층은 악사의 연주를 듣고, 하층민 역시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리듬을 타며 그들 나름의 음악문화를 즐겨왔다. 때문에 음악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모두가 향유할 수 있었던 예술이었음에 그 의의가 있다.

셋째, 전파 및 교류 시 특별한 물질적 수단이 필요하지 않았다. 문학작품이나 미술품은 각각 책이나 조각상 등 실체가 존재해야 그 전파 및 교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크로드 음악은 악기의 전파 외에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리듬과 멜로디, 몸짓으로 전해지는 춤 등으로 특정한 실체 대신 사람만 존재하면 그 교류가 가능했다. 때문에 실크로드 음악은 그 전파성이 강하여, 다른 어떤 교류보다도 더 용이하고 확장된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실크로드의 음악적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먼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실크로드 음악이 각종 놀이와 의식에 연관되어 있고, 계급을 막론하여 모든 이들이 즐겨왔으며, 전파성 역시 강했기 때문에 그만큼 실크로드 상의 교류를 음악을 통해 다른 어떤 분야의 교류보다 더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음악의 전파 및 교류형식이 현대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의 서역 음악은 조금씩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중국으로 전래되어, 한국의 음악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고구려는 이러한 방식으로 서역악을 수용, 자국의 전통 음악과 결합시켜 고구려악이라는 새로운 음악을 창조한 후 중국에 전파하였다. 수나라 때 성행했던 칠부악과 구부악의 악무 중에는 고대 한반도의 악무인 <고려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북주(557~581) 때 중국의 궁정악부에 실리기도 하였다.⁴⁾ 새로운 음악문화를 접한 국가가 자국의 음악에 새로운 음악을

4) 리우짜이성, 『중국음악의 역사』, 민속원, 266쪽.

융합시키거나 제 3의 음악을 창조하여 또 다시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현재 서양의 영향을 받은 한국 음악이 한국인의 정서로 알맞게 변화되어 k-pop으로 재탄생하였고, k-pop은 다시 서양을 비롯한 전 세계로 수출되어 인기를 누리고 있는 현상과 비슷하다. 따라서 현재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음악적 교류는 과거 실크로드 상의 음악적 교류와 거의 동일한 교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실크로드의 음악적 가치에 집중하여 그 분야의 연구에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내 실크로드 음악에 대한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그 비중이 실크로드 관련 역사 및 교역 등의 분야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 역시 ‘실크로드’라는 단어만 알고, ‘실크로드 음악’에 대한 내용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실크로드 음악에 관한 한국 내 학자들의 연구 현황을 조사하고, 실크로드 음악연구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2. 한국 실크로드 음악연구의 현황

한국에서 ‘실크로드 음악’을 주제로 한 연구물을 조사한 결과, 1991년 『음악평론』에 게재된 전인평의 논문 「실크로드 음악의 아름다움(1991)」이 그 시작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는 전인평의 논문과 서적들이 한국 실크로드 음악 연구의 주를 이루었다. 2001년에는 정수일의 『셀크로드학』이 출판되었는데, 이 책은 실크로드 문명 교류의 루트를 제시하고 교역 내용 및 방식을 설명함으로써 실크로드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 책의 출판을 기점으로 학계에는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셀크로드학』이 제시한 문명 교류를 기반으로 실크로드 음악의 교류에 대한 연구물 역시 점차 증가하였다. 2008년에는 경상북

도가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며 한국과 실크로드를 연계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였고, 2015년에는 실크로드 경주 엑스포가 개최되어 그 시도가 더욱 확장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 실크로드 연구에 큰 영향을 준 1991년, 2001년, 2008년을 기점으로, 개념화 시기를 1991년~2000년, 확대 시기를 2001년~2007년, 다양화 시기를 2008년~현재로 설정, 각 기간 동안 이루어진 한국의 실크로드 음악에 관한 연구 현황을 분석할 것이다. 이 분석을 위해 한국 학술지 검색 사이트인 KISS, DBpia, eArticle과 한국의 국회도서관에서 ‘실크로드 음악’, ‘실크로드’, ‘비단길’ 등을 키워드로 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1) 개념화 시기: 1990년~2000년

1991년부터 2000년은 ‘실크로드 음악’을 개념화한 시기로 이 시기의 연구는 한 학자의 업적이 주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바로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교수를 역임한 학자 전인평이다. 전인평은 학술지 『음악평론』에 논문 「실크로드 음악의 아름다움(1991)」과 「비단길 음악의 멋(1997)」을 게재했으며 책 『비단길 음악과 한국음악(1996)』을 출판한 바 있다. 먼저, 논문 「실크로드 음악의 아름다움(1991)」은 장안 음악, 돈황 음악의 특징을 설명하고 실크로드와 한국 음악의 관계를 설명한 글이다. 이 글에서 그는 세종대왕이 작곡한 「여민락⁵⁾」이 아프가니스탄의 한 오아시스 국가 음악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며, 인도에서 시작된 악기 장구는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파되었다고 본다. 특히 중국 돈황의 막고굴 벽화에 그려진 악기 중 많은 종류가 서역 계통의 악기라는 사실에 근거, 이 역시 실크로드를 통한 음악 전파임을 주장하고 있다.

전인평의 『비단길 음악과 한국음악(1996)』 역시 실크로드 음악과 한국음악

5) 조선시대 세종(1418~1450) 때 세종이 작곡하였으며, 『봉래의(鳳來儀)』에 포함된 음악으로 백성과 함께 즐기자는 뜻이 담긴 음악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

의 장단 및 선법, 그리고 실크로드 음악과 한국음악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년 후 게재된 전인평의 논문 「비단길 음악의 멋(1997)」은 실크로드에 위치한 나라인 중국, 태국, 네팔, 인도네시아의 음악에 관한 내용으로, 리장음악·경극음악·티벳음악을 포함한 중국음악과 태국·네팔·인도네시아의 음악 문화를 설명하고 이 음악들의 관계성 뿐 아니라 한국 음악과의 연계성까지 설명한 글이다.

개념화 시기는 ‘실크로드 음악’을 단독 주제로 내세운 연구물이 등장하기 시작한 때이다. 이 시기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인평이라는 특정 학자의 연구에 의존해 온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중국, 한국, 일본을 따라 전파하는 방식으로 실크로드의 음악이 전파해왔다는 것을 당위성 있게 설명하고, 실크로드 각 국가의 음악적 특징을 자세하게 풀어냈으며, 한국 음악과 실크로드 음악과의 관계를 밝혀내는데 주력하였으므로 학자의 수와 연구의 양은 부족하지만 그 깊이와 질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2) 확대 시기: 2001년~2007년

확대 시기인 2001년~2007년은 실크로드 음악 연구가 확장된 때로 이 시작점인 2001년에는 실크로드 연구학자 정수일이 단행본 『실크로드학(2001)』을 출판하면서 실크로드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은 많은 학자들은 실크로드학 뿐 아니라 실크로드 음악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의 연구 성과들은 크게 음악 중심, 악기 중심, 문헌사료 중심의 연구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음악을 중심으로 한 연구성과물은 홍주희의 논문 「마캄의 형성과 발전(2002)」, 이보형의 논문 「한국음악과 실크로드음악에서 동주음관계계명

생성 연구(2003)], 전인평의 논문 「실크로드를 통하여 전파된 3단계 음악 형식(2006)」이 있다. 홍주희의 논문 「마캄의 형성과 발전(2002)」에서 저자는 대곡(大曲)을 뜻하는 이라크의 전통 음악 마캄의 역사적 기록과 음악구조를 분석하고, 마캄의 다양한 지역으로의 전파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느린 박자에서 빠른 박자로 이동하는 마캄의 음악적 형식을 한국과 일본의 음악 형식과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보형의 논문 「한국음악과 실크로드음악에서 동주음관계계명 생성 연구(2003)」에서 저자는 중국 한족 음악보다 한국의 중세 음악이 인도를 비롯한 실크로드 음악과 더 형식적으로 가까운 이유를 설명, 한국 음악과 실크로드 음악의 깊은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전인평의 논문 「실크로드를 통하여 전파된 3단계 음악 형식(2006)」에서 저자는 인도·태국·캄보디아·중국·한국의 리듬을 비교하여, 이 리듬들이 모두 3단계의 변화를 거친다는 공통점에 주목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 공통점은 해양 실크로드를 통한 리듬의 전파에 그 원인이 있는데, 이는 실크로드 상의 국가가 상호 음악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음악 중심의 연구물은 비록 그 성과가 많지는 않지만 고대 실크로드 중 서아시아 지역, 인도 지역의 음악형식과 동아시아 지역의 음악형식과의 비교연구, 일부 실크로드지역에서 나타나는 음악형식의 공통점 연구 등, 음악 형식에 대한 동·서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적이다.

확대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 중 악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물은 『아시아음악학회』에서 발간한 홍주희의 논문 「실크로드 음악의 전래와 변천-장구를 중심으로(2001)」를 들 수 있다. 이 글은 실크로드를 통한 음악의 전래와 변천을 장구의 기원과 전파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시대에 따른 장구의 모양 변화, 인도에서 기원한 장구가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과정과 이 과정에서 외래 음악 및 악기를 수용하는 우리나라의 태도 등을 서술하고 있다. 문종 10년인 1056년에 장구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⁶⁾는 역사적 기록은 천축이라

6) 홍주희, 「실크로드 음악의 전래와 변천-장구를 중심으로」, 『아시아음악학 총서』,

블리던 장구가 인도에서 시작되어 실크로드를 통해 한국까지 전파된 사실과, 우리나라 역시 실크로드 상에서 적극적으로 음악 교류를 한 국가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악기 중심의 연구물은 단 한편의 논문이지만 한국의 대표적 악기중 하나인 장구가 실크로드 지역에서 전파되어왔다는 사실을 규명한 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물 중 문헌사료를 그 대상으로 한 자료는 김현주의 논문 「敦煌樂譜와 敦煌民間歌辭와의 關係試探(2001)」와 「敦煌舞譜「南歌子」와 樂歌와의 關係 연구(2003)」가 있다. 먼저, 「敦煌樂譜와 敦煌民間歌辭와의 關係試探(2001)」은 고대 실크로드 교류의 중심지였던 돈황의 악보형태와 내용, 악보 상에 등장한 조율법 및 박자와 리듬을 분석한 글로, 돈황 악보에 당시의 민간가사를 결합함으로써 고대 실크로드 음악의 소리를 재현해 보고자 시도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김현주의 논문 「敦煌舞譜「南歌子」와 樂歌와의 關係 연구(2003)」는 돈황무보 「南歌子」의 기록 시기와 이 무보에서 나타난 박자와 동작을 설명하고, 무보의 해석을 통해 「南歌子」곡이 酒筵에서 사용된 짝막한 춤동작일 것이며 아울러 그러한 춤에 어울려 불리웠을 酒令「南歌子」가사는 연회의 분위기에 맞는 내용이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실크로드 문명교류의 중심지였던 중국 돈황에서 발견된 唐나라의 무보를 중심으로 그 시대의 음악과 춤이 결합하여 연행되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실크로드음악과 관련된 단행본 저서로는 정수일의 책 『실크로드학(2001)』, 전인평의 『실크로드, 길 위의 노래(2003)』, 정은주·박미란·백금희의 『비단길에서 만난 세계사(2005)』가 있다. 이 저서들은 실크로드 지역의 음악과 악기의 전파과정을 함께 연구하거나 각 지역의 음악문화를 고찰하는 방식으로 실크로드 음악과 교류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정수일은 『실크로드학(2001)』에서 ‘구자악7’, ‘천축악8)’ 등의 서역 음악과

2001, 39쪽.

7) 중국에 소개된 서역음악 중 하나로 수대와 당대 때 ‘호악’으로 불리며 유행되었던 음악.

8) 중국 한대~수·당대 때의 사람들은 인도를 천축이라고 일컬었으며 이 지방의 음악은

‘비파’, ‘공후9), ‘가10)’ 등의 서역 악기가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설명, 실크로드 상의 각 국가의 음악적 교류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전인평의 『실크로드, 길 위의 노래(2003)』는 1990년대 한국의 실크로드 음악의 주 연구자였던 저자가 실크로드의 각 국가를 여행하며 보고 느낀 경험들과 각 국가의 음악적 특징을 취합하여 출판한 책이다. 이 책은 논문 「비단길 음악의 멋(1997)」의 내용을 심화·확장시킨 것으로, 중국·일본·인도·네팔·파키스탄·중앙아시아·몽골·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아랍·터키의 장장 12개 실크로드 국가의 음악에 대한 글을 수록하고 있다. 저자는 각 국가를 여행하며 그 나라에서 접한 문화, 종교, 음악에 관한 감상 및 사실을 기행문 식으로 풀어내어, 딱딱한 음악적 이론 대신 친숙한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실크로드 음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실크로드의 각 국가들의 음악을 한국의 전통음악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음악의 기원과 전파과정을 살펴보고 한국 역시 실크로드 상의 한 국가라는 사실을 제시한다.

정은주·박미란·백금희의 『비단길에서 만난 세계사(2005)』는 실크로드의 주요 인물들과 그 곳에서 이루어진 문물 교류 등을 세계사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실크로드 음악이 서역에서 기원하여 중국으로 옮겨진 후 한국으로 전파됨을 주장하며 그 예로 쿠처 음악과 악기 공후를 든다. 이 책에 따르면 쿠처 음악은 인도와 페르시아, 아랍의 영향을 받은 음악으로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전래되었다. 또한 고조선의 가요 ‘公無渡河歌’에서 등장하는 악기 공후는 고대 인도의 대표적인 현악기로 한나라 武帝 때 중국으로 전파되었는데, 이 역시 실크로드 국가들의 음악적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임을 서술하였다.

천축악이라 불리웠다. 천축악은 345~353년에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정수일, 『실크로드 사전』, 2013 참고.

- 9) 슬(瑟)과 외관이 비슷하나 그보다 더 작고 비파와 연주법이 동일하다, 정수일, 『실크로드학』, 창작과 비평사, 2001, 358쪽 참고.
- 10) 관은 양뿔로, 머리는 갈대로 구성된 관악기로 ‘호가’라고도 불렸으며 장건이 서역에서 돌아온 후 보급된 악기이다, 정수일, 『실크로드학』, 창작과 비평사, 2001, 359쪽 참고.

확대 시기인 2001년~2007년은 개념화 시기인 1990년~2000년에 비해 다양한 학자들이 실크로드 음악 분야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낸 때로, ‘실크로드 음악’ 연구가 확장된 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개념화 시기에 발표된 연구물이 실크로드 음악과 한국음악을 설명하고 두 음악의 관련성에 집중하였다면, 확대 시기는 장구 등 특정 악기, 위구르의 마캄 등 특정 지역의 음악, 돈황의 악보와 무보 등 특정 문헌 사료를 통하여 실크로드의 음악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이 돋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글이 서역으로부터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전해진 실크로드 음악의 전파 과정과, 이에 근거한 실크로드 음악과 한국 음악과의 관련성에 그 주제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이는 개념화 시기와 유사한 점이라 할 수 있다.

3) 다양화 시기: 2008년~ 현재

다양화 시기인 2008년~현재는 실크로드 음악 연구가 다양화된 때로 이 때 한국의 경상북도는 실크로드 관련 학술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실크로드 프로젝트, 2015년에는 경주 실크로드 엑스포를 개최하며 한국 내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특히 2015년에 경주에서 개최된 Silk-Road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¹¹⁾에서는 세션 ‘실크로드와 예술’에서 전인평의 논문 「한국음악에 미친 실크로드 음악의 영향-인도·인도네시아·태국·중국 남부·한국의 리듬」이 발표됨으로써 ‘실크로드 음악’이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화 시기의 연구물들은 외국의 음악이나 문헌자료뿐 아니라 한국의 음악과 악기로부터 실크로드의 음악적 교류의 증거를 찾아냄으로써, 한국이 명실상부한 실크로드 상의 한 국가라는 점을 밝혀냈음에 그 의의가 있다. 이 시기에 탄생한 연구물들은 크게 악기 중심

11) 2015년 8월 21~24일 한국의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된 세계실크로드대학연맹과 세계실크로드학회 창립 기념 국제학술대회이다. 한국, 러시아, 이란,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터키, 인도네시아 등지의 39명의 학자들이 실크로드를 주제로 한 연구물을 발표하였다.

의 연구와 그 외의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악기 중심의 연구로는 전인평 등이 저술한 단행본 『실�크로드의 예술(2008)』, 조석연의 논문 「한국 요고의 기원에 관한 연구(2011)」와 「한국 통소의 기원에 관한 고찰(2014)」을 들 수 있다.

『실�크로드의 예술(2008)』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크로드의 문학, 문화, 그리고 일본과 인도의 실�크로드학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다. 이 책에서 전인평은 중국·한국·일본의 비파를 비교·분석하여 페르시아가 그 기원인 비파가 중국, 한국, 일본 순서로 전파되었고 이는 실�크로드를 통한 악기의 전파라는 것을 설명한다.

조석연의 논문 「한국 요고¹²⁾의 기원에 관한 연구(2011)」는 한국에서 사용된 악기 요고의 기원 과정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저자는 문헌사료를 통해 요고의 형태와 분포를 살펴본 결과, 고구려가 요고를 사용할 시에 페르시아, 카슈가르, 쿠차, 돈황, 한국, 일본의 실�크로드 북로의 국가 역시 요고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발견, 페르시아 서역계와의 교류를 통해 요고가 한국으로 전파되었다고 주장한다.

조석연의 논문 「한국 통소의 기원에 관한 고찰(2014)」은 한국에 존재하는 통소인 시나위¹³⁾ 통소와 북청사자놀이 통소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북청사자놀이 통소가 실�크로드 지역에서 사용되는 네이류 악기들과 유사한 음색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또한 페르시아 네이류 악기가 실�크로드를 타고 각 국가들에 전해진 사실과, 고구려와 백제 유적에 이와 같은 형태의 악기가 발견된 점에 따라, 한국 역시 실�크로드 음악적 교류의 선상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악기 중심의 연구물들은 한국의 고대 악기와 실�크로드 상의 다른 국가의 악기를 비교 분석하여 그 공통점을 발견, 실�크로드를 통한 음악적 교

12) 장구와 비슷하지만 그보다 크기가 작은 악기로, 고구려 때 사용되었다.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보고서, 2012 참고.

13) 무속음악에서 유래한 민속 기악합주곡으로 일정한 장단 안에서 자유롭고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류를 증명하는데 의의가 있다.

음악 문화를 비롯한 그 외의 연구로는 홍주희의 논문 「실크로드의 음악 문화-중국 신장 위구르 음악(2008)」, 국립제주박물관에서 편찬한 단행본 『실크로드 역사와 문화(2008)』, 전인평의 논문 「한국음악에 미친 실크로드 음악의 영향-인도·인도네시아·태국·중국 남부·한국의 리듬(2015)」이 있다.

홍주희의 논문 「실크로드의 음악 문화-중국 신장 위구르 음악(2008)」에서 저자는 실크로드의 동서 교류 요충지인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음악의 특징을 분석하여, 집단성과 정형·즉흥성, 가속성과 같은 특징이 한국음악의 많은 부분과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 이 역시 실크로드를 통한 음악의 전파로 인한 영향임을 암시한다.

국립제주박물관의 『실크로드 역사와 문화(2008)』는 전인평을 비롯, 실크로드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종교, 미술, 음악, 복식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실크로드 이야기를 쓴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전인평은 중앙아시아의 음악과 한국 음악의 역사적 교류를 관찰하고, 고구려 때의 거문도, 요고 등의 악기와 안악 3호분 주악도 등 문헌사료를 통해 고구려가 실크로드 음악을 수용, 고대 동북아 음악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¹⁴⁾을 설명한다.

Silk-Road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에서 발표된 전인평의 논문 「한국음악에 미친 실크로드 음악의 영향-인도·인도네시아·태국·중국 남부·한국의 리듬(2015)」은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남부, 한국의 장단을 비교 분석하여 이 리듬의 공통점에 의거, 한국 음악이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의 장단을 수용¹⁵⁾했다고 언급함으로써, 실크로드를 통한 음악 교류를 증명하고 있다.

다양화 시기인 2008년~현재까지의 한국 실크로드 음악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확대 시기와 같이 다양한 학자들의 논문과 서적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확대 시기가 외국의 특정 악기와 음악, 과거 기록을 관찰·분석하는 연구

14) 전인평 외, 『실크로드 역사와 문화』, 서경문화사, 2008, 107쪽.

15) 전인평, 「한국음악에 미친 실크로드 음악의 영향-인도·인도네시아·태국·중국 남부·한국의 리듬(2015)」, 『Silk-Road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2015, 287쪽.

방법 위주였다면, 다양화 시기는 한국의 고대 악기 및 음악문화에 대한 다양한 고찰이 이루어져 한국 음악과 실크로드를 깊게 연결시킨 연구물들이 등장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저자들이 실크로드를 통해 서역으로부터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이어지는 음악의 전파 과정에 그 주제의 무게를 두고 있어, 한국 음악의 기원이 중국 등 특정 국가가 아니라 실크로드라는 거시적인 길 위에서 전래, 변화되어 온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실크로드 음악의 연구 현황을 개념화 시기, 확대 시기, 다양화 시기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개념화 시기인 1990년~2000년은 ‘실크로드 음악’을 주제로 한 연구물이 처음 등장한 시기로, 전인평의 연구물이 주를 이루었으며 한국 음악과 실크로드 음악의 연관성을 주제로 한 내용이 중심이 되었다.

확대 시기인 2001년~2007년은 실크로드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기 위한 학자들의 시도가 있었으며, 개념화 시기에 비해 다양한 학자들이 비교적 많은 실크로드 음악 관련 연구물을 발표하였고, 특정 음악이나 악기, 문헌 사료 등을 통해 실크로드 음악의 흔적 및 전파 과정을 찾으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다양화 시기인 2008년~현재는 한국의 경상북도 경주시가 한국을 실크로드 상의 한 국가로 연계시킴으로써, 다양한 학술대회와 실크로드 엑스포를 추진하는 등 한국인들의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킨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한국 내 실크로드 음악 연구의 방향이 두 가지로 집중되어 있는데, 첫째는 문헌기록이나 특정 지역의 음악을 근거로 하여 실크로드 상의 음악교류의 가능성을 고찰하고, 둘째는 한국에 전래된 악기의 분석을 통하여 실크로드 상의 다른 지역과의 음악적 교류를 밝힘이 그것이다.

세 기간을 통틀어 아쉬운 점은, 실크로드 관련 전문서적의 경우 음악에 관한 설명 비중이 대단히 낮고, 또한 ‘실크로드 음악’을 주로 연구하는 학자들보다는 실크로드학 자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비중이 훨씬 높아 여전히 실크로드 음악 자체에 관한 연구물은 타 분야에 비해 그 양과 깊이가 부족한 실정인

리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서론에서 실크로드 음악이 가진 가치 중 하나로 각종 의식에 사용되며,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고, 그 전파성이 강해 실크로드 음악이 실크로드 상의 국가 간 교류를 증명하는 데에 효과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실크로드 음악의 가치는 현대 음악이 지닌 가치와 그 특징이 유사하다. 현대 음악 역시 사회·경제적 계층을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이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대인에게도, 고대 실크로드 위의 사람들에게도 관심과 흥미가 큰 ‘음악’이 실크로드 연구에 있어 도외시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나 아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대중성이 큰 문화예술인 ‘음악’을 통해 실크로드에 대한 대중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크로드 학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유로, 현재 한국 내 학자들이 일구어낸 실크로드 음악 연구 현황 조사에 멈추지 않고 그 전망을 간략하게 제시하며, 앞으로 이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한국 실크로드 음악연구의 전망

실크로드를 대상으로 한 전문 서적의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실크로드 음악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도 더 다양화되고 확대될 것이라 본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본 논문에서 분석한 한국 실크로드 음악 연구의 현황에 기인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실크로드 음악’이 개념화된 개념화 시기, 연구가 확장된 확대 시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다양화 시기를 지나며 이 분야의 학자들과 연구 성과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현대인들의 음악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대 실크로드 사회에서와 같이 현대의 음악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밀접하고 친숙한 예술적 요소다. 또한 한국의 음악 산업은 세계로 전파되며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때문에 현대인들의 실크로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실크로드 음악’은 비록 고대의 음악일지라도, 친숙하고 접근 가능성이 높은 예술적 교류의 산물이기에 실크로드에 대한 이해를 돕는 훌륭한 오작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실크로드 음악이 악기 및 음악의 전파를 통해 각 실크로드 국가의 교류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때문에 실크로드 연구에 있어 이러한 음악적 교류는 실크로드 상의 각 국가적 교류의 큰 증거가 될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실크로드 음악’ 연구는 더 다양화되고 확대될 것이라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이 서술한 한국 실크로드 음악 연구의 전망을 실현 가능케 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실크로드 음악과 현대 음악의 연계성 확보이다. 본 논문을 위해 ‘실크로드 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면서 느낀 점은 실크로드 음악이 소리로 보존될 수 없었던 고대의 음악이다 보니 현대인들에게 다소 낯선 느낌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현주의 논문 「敦煌樂譜와 敦煌民間歌辭와의 關係試探(2001)」에서 돈황의 악보에 가사를 넣어보거나 전인평의 논문 「실크로드를 통하여 전파된 3단계 음악 형식(2006)」에서 실크로드 음악에 사용된 박자와 리듬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등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몇 가지 연구물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실크로드 음악을 현대적으로 설명, 그 이해를 돕는 연구에서 더 나아가, 본 논문은 대중들에게 친숙한 국악 멜로디나 현대의 인기가요에서 실크로드 음악적 요소를 찾아 박자, 리듬, 멜로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대 음악과 실크로드 음악의 관계성을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렇게 된다면 대중들 역시 친숙한 음악으로부터 실크로드적 요소를 발견하여, 실크로드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고 이 분야의 연구 역시 활성화될 것이다.

둘째, 실크로드 음악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실크로드 음악은 소리가 보존될 수 없었던 시기의 음악이기 때문에 악보와 무보 등 기록으로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대까지 전통음악으로 이어져오는 경우도 있다. 기록

으로만 존재해 온 특정 실크로드 국가의 음악을 멜로디와 악보 등으로 재현할 수 있도록 이를 음성파일이나 문서파일에 담아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현대까지 과거 실크로드 음악이 한 국가의 전통음악으로 이어져오는 경우라면, 그 나라의 악기와 춤을 포함한 음악문화에 관한 자료들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실크로드 음악에 관한 호기심을 가진 이들이 관련 파일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대인들의 실크로드 음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더 높아질 것이다.

셋째, 실크로드 음악에 문화콘텐츠적 요소를 입히는 것이다. 실크로드 상에서 활동했던 인물 혹은 가상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당시 사용되었던 고대 악기나 음악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창작, 이를 출판하거나 영상화하는 것이다.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바람의 화원(2008, SBS)」은 조선시대 도화서를 배경으로 한국에서 실제로 현존했던 화가 김홍도와 신윤복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사실 김홍도와 신윤복은 모두 남성 화가이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원작인 이정명의 소설 『바람의 화원(2007)』을 바탕으로 하여, 신윤복을 남장 여자로 그리고 있다. 실존인물에 허구적 요소를 입혀 새롭게 스토리를 창조한 것이다. 이 드라마로 인해 조선시대의 화가 김홍도¹⁶⁾와 신윤복¹⁷⁾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당시의 미술세계에 관한 대중들의 관심 역시 높아진 바 있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방영된 드라마 「대장금(2003, MBC)」 역시, 중종(1506~1544)의 주치의였던 의녀 장금의 생애를 재구성한 드라마인데, 장금이 수라간 궁녀로 들어왔다는 허구적 설정을 함으로써, 조선시대 궁중 음식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실제로 궁중 음식을 배우거나 조선시대 음식에 관련된 서적들이 크게

16) 김홍도(1745~1806): 호는 단원. 조선시대 정조(1752~1800) 때 활동한 화가. 궁중의 도화서 화원으로 임금의 큰 신임을 얻었다. 산수화, 풍속화에서 특히 뛰어난 그림을 남겼다.

17) 신윤복(1758~?):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로 도화서의 화원이었다. 남녀 간의 연애와 양반의 풍류 등을 주로 그렸으며 주요작품으로는 월하정인, 미인도, 단오풍정 등이 있다.

인기를 끈 바 있다.

넷째, 고대 실크로드 음악의 요소를 반영하여, 현대적인 새로운 실크로드 음악을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일본의 뉴에이지 작곡가 기타로(喜多郎, 1953 ~)는 실크로드를 주제로 한 음반 「Silk road Suite(1981)」를 발매하였는데, 이 음반은 총 15곡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당시 일본 방송사 NHK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실크로드(1980~1989, NHK)」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다. 실크로드를 연상케 하는 기타로의 음반은 일본에서 총 1000만장이 판매되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수립하였다. 한국에서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양방언이 차마고도에 대한 음악 29곡을 작곡하여 음반으로 발매한 바 있다. 이 음반은 KBS 다큐멘터리 「차마고도(2007, KBS)」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는데, 차마고도를 연상시키는 신비롭고 광활한 멜로디로 이목을 끌었다. 한국 역시 차마고도의 발매에서 그치지 않고, 기타로의 「Silk road Suite(1981)」처럼 실크로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반을 발매한다면 대중의 높은 관심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현재 한국에 있는 실크로드학 관련 학회와 실크로드음악관련 단체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정부기관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실크로드 관련 연구소는 1983년 설립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0년 설립된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9년 설립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돈황 학센터, 2014년 설립된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 2014년 계명대학교에 설립된 실크로드중앙아시아연구원, 2014년 설립된 한국외국어대학교 실크로드 연구센터가 있다.¹⁸⁾ 특히 한국의 경상북도는 2008년부터 실크로드에 관련된 연구를 확장시켜나갔는데, 2015년에는 ‘실크로드 경주 2015’를 개최하여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한국과 실크로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연구소와 정부 지원의 박람회 개최 등의 행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연구 및 한국인들의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켜나가야

18) 김현주·배경진, 「한국 실크로드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현대중국연구회』, 2015.

할 것이다.

4. 맺음말

실크로드는 대중들에게 친숙한 단어이지만, 그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내용 및 가치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실크로드 음악은 대중들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낮은 소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크로드 음악’은 각국의 놀이와 의식에 연관되어 있고, 계급을 막론하고 즐길 수 있으며 그 전파성 역시 강하기 때문에 고대인들의 삶을 가장 밀착하여 연구할 수 있는 소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실크로드 국가에서 발견된 유사 악기와 음악문화를 통해서, 고대 실크로드 국가의 음악적 교류뿐 아니라 예술적 교류, 나아가 당시의 사회적 교류까지 유추해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가 될 수 있기에 큰 가치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실크로드 음악 연구 현황을 총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먼저 개념화 시기인 1990년~2000년은 ‘실크로드 음악’을 주제로 한 연구물이 처음 등장한 시기로 ‘실크로드 음악’을 개념화하고 한국 음악과 실크로드 음악의 밀접한 관계를 제시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확대 시기인 2001년~2007년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물이 발표되었으며 특정 음악과 악기, 문헌 사료를 통한 실크로드 음악 연구가 확장된 시기이다. 다양화 시기인 2008년~현재는 경주 실크로드 엑스포 등 큰 국가적 행사를 배경으로, 특정 문헌사료와 음악, 한국의 고대 악기를 통한 다양한 실크로드 음악 연구가 확장되어,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역사상 이루어진 한국의 실크로드 음악 연구 현황을 분석하여, 고대 실크로드 음악 및 실크로드 각국의 음악적 교류를 분석하고 이에 나아가 실크로드 음악과 한국 음악의 관계를 정립함에 의의를 두는 바이다.

비록 초보적인 자료정리와 분석을 통해 부족한 견해를 담은 글이지만, 이

글을 통하여 실크로드 음악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보고, 실크로드 음악의 한국 내 연구 현황과 전망을 통해 이 분야의 연구가 동서 문화 교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촉진제가 되고 나아가 다양한 문화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參考文獻

- 김현주, 「敦煌樂譜와 敦煌民間歌辭와의 關係試探」, 『중국학연구』 제 20집, 중국학연구회, 2001.
- _____, 「敦煌舞譜 「南歌子」와 樂歌와의 關係 연구」, 『중국연구』 제 31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03.
- 김현주·배경진, 「한국 실크로드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중언어문화연구』, 한국현대중국연구회, 2015.
- 류동성, 『그림으로 보는 중국음악사』, 서울: 민속원, 2010.
- 리우짜이성, 『중국음악의 역사』, 서울: 민속원, 2004
- 박진태 외, 『실크로드의 예술』, 서울: 박이정, 2008.
-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서울: 보고서, 2012.
- 이보형, 「한국음악과 실크로드음악에서 동주음관계계명 생성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 34집, 한국국악학회, 2003.
- 이정명, 『바람의 화원』, 서울: 밀리언하우스, 2007.
- 전인평, 「실크로드 음악의 아름다움」, 『음악평론』 제5집, 한국음악평론가협회, 1991.
- _____, 『비단길 음악과 한국음악』,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6
- _____, 「비단길 음악의 멋」, 『음악평론』 제9·10집, 한국음악평론가협회, 1997.
- _____, 『실크로드, 길 위의 노래』, 서울: 소나무, 2003.
- _____, 「실크로드를 통하여 전파된 3단계 음악 형식」, 『고전희곡연구』제12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6.
- _____, 「한국음악에 미친 실크로드 음악의 영향-인도·인도네시아·태국·중국 남부·한국의 리듬(2015)」, 『Silk-Road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2015.
- 정은주·박미란·백금희, 『비단길에서 만난 세계사』, 파주: 창작과 비평사, 2005.
- 정수일, 『실크로드학』,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 _____, 『실크로드 사전』, 파주: 창작과 비평사, 2013.
- 국립제주박물관, 『실크로드 역사와 문화』, 서울: 서경문화사, 2008.

- 조석연, 「한국 요고의 기원에 관한 연구」, 『음악과 문화』 25권 0호, 세계음악학회, 2011.
- 조석연, 「한국 통소의 기원에 관한 고찰」, 『한국음악사학보』 52권 0호, 한국음악사학회, 2014.
- 홍주희, 「실크로드 음악의 전래와 변천-장구를 중심으로」, 『아시아음악학 총서』, 아시아음악학회, 2001.
- _____, 「마قام의 형성과 발전」, 『음악과 민족』 제 23호, 민족음악학회, 2002.
- _____, 「실크로드의 음악 문화: 중국 신장 위구르 음악」, 『아시아음악학 총서』, 아시아음악학회, 200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디지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동방미디어, 2001.

<한국의 실크로드 음악연구 목록>

- 김금남, 「돈황가사연구」, 남경대학, 1997.
- 김성혜, 「한국고대음악연구의 검토, I: 상고사회와 고구려음악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 11집, 1993.
- _____, 「신라의 외래음악 수용양상: 6~7세기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 35집, 2005.
- 김영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달랑(dalang)과 가믈란」, 『아시아음악학 총서』 제 1권, 2001.
- 김해숙, 「한국전통음악의 장단구조와 빠르기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제 27집, 2001.
- 김현주, 「당.오대 돈황민가 연구」, 국립대만사범대학교, 1994.
- _____, 「문학 : 실크로드상의 돈황과 돈황학 - 겸론 돈황민가 -」, 『중국연구』 30권, 2002.
- _____, 「敦煌民歌反映的禮俗研究」, 『중국연구』 29권, 2002.
- _____, 「韓國敦煌文學研究的回顧與展望」, 『敦煌學』 第30輯, 臺灣南華大學, 2013.
- 남기영, 「한국음악 장단에 있어서의 즉흥성」, 『음악평론』 제 12집, 2002.

- 박미경, 「우리의 음악문화: 세계 안의 한국, 한국 안의 세계」, 『음악과 문화』 10권, 2004.
- 박소현, 「몽골전통음악과 20세기 정치적 사회변화에 따른 변용」, 『아시아음악학 총서』, 2008.
- 박혜정, 「인도음악의 특징에 따른 상황적 이해」, 『음악평론』 제 7·8집, 1994.
- 서인화, 「베트남 궁중음악의 전통과 변화에 대한 소고」, 『아시아음악학 총서』, 2008.
- 유신, 「한국정악의 확산과 맥락(韓國正樂의 擴散과 脈絡)」, 『음악평론』 제1집, 1987.
- 윤혜진, 「인도음악의 현재, 과거에서 미래를 비추어 보다」, 『아시아음악학 총서』, 2008.
- 전인평, 「전통 음악의 새로운 인식」, 『음악평론』 제 3집, 1989년.
- _____, 「동양음악의 아름다움」, 『음악평론』 제 4집, 1990년.
- _____, 「인도음악의 선율구조에 관한 연구」, 『한인문화논총』 VOL 7·8, 1990.
- 전인평·나덕성, 「동양음악과 서양음악과 리듬비교 연구」, 『음악평론』 제 6집, 1992.
- 전인평, 「아시아 음악과 한국 음악」, 『아시아음악학 총서』 제 1권, 2001.1.
- _____, 「동남아시아 음악의 세틀 형식」, 『아시아음악학 총서』 제 2권, 2001.
- _____, 「세종실록 봉래의의 장단과 속도」, 『아시아음악학 총서』 제 1권, 2001.
- _____, 「中國의 大曲과 樂學軌範의 曲破」, 『음악과 문화』 제 5호, 2001
- _____, 「INDIAN MUSIC 인도음악의 멋과 신비」, 『아시아음악학 총서』, 2003.
- _____, 「아시아 음악의 어제와 오늘」, 『아시아음악학 총서』, 2008.
- _____, 「인도음악의 전통과 현대적 변용」, 『아시아음악학 총서』, 2008.
- _____, 「인도와 한국의 즉흥 음악」, 『음악과 문화』 19권, 2008.
- _____, 「동아시아 현대음악 이해를 위한 안내: <동아시아와 서양음악의 수용> 서평을 중심으로」, 『음악평론』 제 15집, 2010.
- 조석연, 「미얀마 전통 악기 사운(Saun)에 관한 고찰」, 『아시아음악학 총서』, 2008.
- 현경채, 「중국음악의 현대적 변용」, 『아시아음악학 총서』, 2008.

Abstract

The Status and prospect on the study of the Silk Road music in Korea

Kim, Hyun-ju·Chae, Eun-yu

This paper analyze the status and prospect on the study of the Silk Road music in Korea.

In this paper, 'Silk Road music' not only means music on the Silk Road, but also the process of transferring and changing music from one country to another and the musical interchange of countries.

Because Silk Road music was used in various rituals and festivals, the ancient people were able to enjoy regardless of social status. Because it spread rapidly from mouth to mouth, it explains the interchange of Silk Road effectively than any other elements of civilization.

This paper analyzed the study of the Silk Road music divided by the 3 period. The first period starts from 1991 to 2000, the second period starts from 2001 to 2007, and the third period starts from 2008 to now.

In the first period, it appeared the theme of 'Silk Road music'. In this period, the study of scholar Chun-In Pyong formed a state of study.

In the second period, when the book 『The Silkroadology』 of scholar Jeong-su il is published, it began to make efforts to solidify the silk road in academia. In this period, various scholars participate in study on the Silk Road music, and they tried to connect specific musical instruments and local music with musical interaction on the Silk Road.

In the third period, Gyeongsangbuk-province actively pushed ahead with events and projects about the Silk Road during the 'Silk Road Expo 2015' in Gyeong-ju. Various scholars analyzed the origin of Korean ancient musical instruments, and connect this with musical interaction on the silk road.

However, the study on the Silk Road music is still small compared to other cultural and arts field. So, in order to develop study in this field, we need a new method that differs from existing efforts.

First, we can find the musical elements about Silk Road from Korean classical music or k-pop, which are familiar to the public. And we can connect with modern music with Silk Road music. Second, It is necessary to build a voice file database for books and promotional materials to listen Silk Road Music directly. Third, It is necessary to create new story or make a film based on the Silk Road. Fourth, it is good method to create a Silk Road recording that reproduce ancient Silk Road music. Fifth, we need to expand our interest in the Silk Road music through holding events such as conference and a fair supported by government.

Key words : Silk Road music, Silk road, ancient music, musical interchange, music

| |
|----------------------------------------------------------------------------------|
| 투 고 일 : 2017. 1. 10. / 심 사 일 : 2017. 1. 15.~ 2017. 2. 13. / 게재확정일 : 2017. 2. 20. |
|----------------------------------------------------------------------------------|